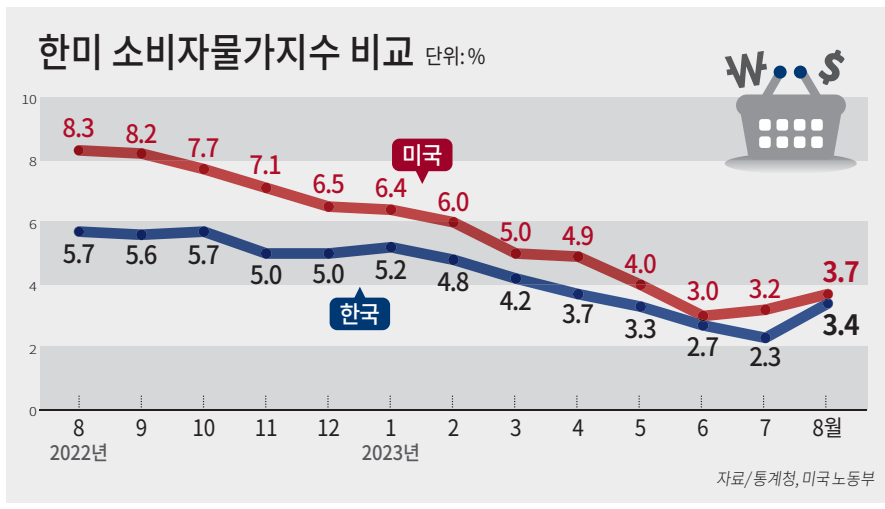
국제유가 등 변수많아… "물가 잡힐 때까지 고금리 지속"

美 기준금리 동결

FOMC, 내년 금리 5.1% 예상
美 CPI 지난 8월 3.7%까지 ↓
모든 영향 평가·변수들 감안



20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발표한 점도표를 보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은 내년 기준금리를 5.1%로 예상했다. 지난 6월 예상했던 4.6%보다 0.5%포인트(p) 증가한 수준이다. 금리인하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시장과 달리 금리수준을 더 높고 오래(higher for longer) 지속해 물가를 낮추겠다는 의미다.

◆ 물가 흐름따라 금리변경

사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살펴보면 지난해 6월 9.1%까지 치솟은 뒤 올해 1월 6.4%, 5월 4.0%, 8월 3.7%까지 떨어졌다. 1년 사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연준이 여전히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배경에는 긴장을 늦춰 물가가 고착화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1950년대 초부터 1960년대 말까지 장기간 물가가 안정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사라지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기준금리를 낮추고 통화량을 늘리는 등 경기부양을 실시했다. 경기부양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늘어나자 물가는 상승했고, 때마침 터진 오일쇼크는 물가를 더 치솟게 만들었다. 1965년 1%대를 유지하던 물가는 1971년말 12.3%로 상승했다.

당시 연준은 물가가 올라갈 때 빠르게 금리인상으로 대응하고, 물가가 내려오면 빠르게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물가안정과 경기부양을 모두 잡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물가가 완전히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금리인하는 오히려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자극했다. 결국 1970년부터 1978년까지 물가는 평균 9%대를 기록했고, 물가를 낮추기 위해 연준은 금리를 21.5%까지 올려야 했다.

지난 7월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나오자 "연준은 더 이상의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일시적인 물가 흐름에 따라 금리를 변경해 경기침체가 온 예전과 달리, 물가가 확실히 잡히기 전까진 다소 높은 금리를 지속해 경기침체가 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 물가 둔화 속도, 예상보다 더딜 듯

이날 파월 연준 의장은 "(유가인상 등) 모든 영향을 평가하고 변수들을 감안하려 하고 있다"면서도 "궁극적으로 현 상황에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워낙 많아 물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국제유가다. 지난 19일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장중 전장보다 1.1% 오른 배럴당 95.47달러에 거래돼 작년 11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95달러선을 돌파했다.

파월 연준의장은 "에너지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소비자기대심리,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에 영향을 미쳐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며 "고유가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보고 리스크를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미자동차노조(UAW)의 파업상황도 변수다. UAW는 제너럴모터스(GM), 포드, 스텔란티스 공장에서 노조 역사상 처음으로 동시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이들의 파업이 지속될 경우 자동차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과거를 돌아보면 파업의 경우 생산량, 인플레이션, 고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얼마나 (파업이) 지속되느냐, 얼마나 손실을 메꿀 수 있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다음 회의에서 데이터를 통해 거시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실손보험이 있고 없고
NH농협생명 홍보모델 장윤정
병원비든든NH의료비보장보험 | 갱신형, 무배당 |
점점 쌓이는 의료비,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질병 구분 없이 쉽고 간편하게 돌려받고 든든한 내일을 만드세요
※ 요양병원, 정신병원 진료비 제외 ※ 비급여 제외
1년간 들어간 본인부담금 보장
복잡한 서류 없이 간편동의 하나로 보험금 지급
(연간 총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기준)
질병치료 입원 상해치료 통원 OK
매년 계약해당일에 연간한도 리필
연간 ※연간한도 최대 1천만원
연간한도 리필
계약일 (23.7.10) 계약해당일 (24.7.10)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시 주계약 보험료 할인
보험청약 시 고향 사랑기부제 참여 의사 확인
최초계약에 한하여 주계약 보험료 5% 할인
(최초계약 납입기간 동안 적용)
보험가입 시 알아 두셔야 할 사항 ※ 이 계약은 2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합니다. 다만,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가 80세를 초과하는 경우 100세 만기 순수보장형으로 최종 갱신합니다. ※ 갱신할 때마다 보험나이 증가, 적용보험요율(적용이율, 적용위험률,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의 변동에 따라 갱신할 때 보험료가 변동(특히, 인상) 될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단기계약 및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청약 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 (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돌려드립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직업, 질병 사항 등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설계사(교차),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법인보험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이며, 보험설계사(전속)는 하나의 보험사(NH농협생명)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설계사입니다. ※ 보험 상담 또는 불만 사항이 있을 때에는 NH농협생명 내담같은 고객센터(1544-4000) 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 없이 1332, www.fss.or.kr)로 연락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NH농협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3-03052호(2023.7.11~2024.7.10)
※ 해당상품은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다릅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NH농협생명이 응원합니다
내맘같이
NH농협생명

한미, 금리격차 2.25%p 예상 "금융시장 영향 주시할 것"

한은, 시장상황 점검회의 개최
美 긴축기조 장기화 가능성 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공동취재단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우리나라와의 금리격차는 2%포인트(p)를 유지하게 됐다. 다만, 오는 11월과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베이비스텝(0.25%p 인상)을 단행할 경우 금리격차는 2.25%p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한국은행은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FOMC의 금리동결에 따른 국제금융시장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유상대 부총재는 "이번 FOMC 회의에서는 금리가 동결됐지만, 올해 중 추가 인상 가능성을 계속 열어 두고 있다"며 "내년말 정책금리 전망을 상향조정하는 등 긴축기조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물가안정을 위해선 한차례 금리인상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8월말 기준 3.4%다. 지난해 말 5.0%에서 3월 4.2%까지 떨어진 소비자물가는 7월 2.3%대로 떨어진 뒤 다시 상승하고 있다. 공공요금과 국제유가 등이 상승한 영향이다. 지난해 보다 둔화되고 있지만, 목표치(2%)를 상회할 가능성이 큰 만큼 추가 금리인상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현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최종금리수준을 3.75%까지 열어 둔 상황이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8월 "미 연준의 통화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졌기 FOMC 회의에서 미국의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오래갈지에 따라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상보다 미국의 금리수준이 높고 오래 지속되면, 환율 등에 영향을 미쳐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 이날 원달러환율은 1337.30원으로 전일보다 10.30원(0.7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추가 금리인상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고금리가 지속되며 부동산 프로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발표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에서 한 위원은 "경기는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본격 회복 국면에 미치지 못하고, 가계부채는 증가 추세에 있다"며 "금융시장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기준금리에 대한 추가 조정 방향 및 크기를 신중히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